

한부모가족의 적응

- 가족탄력성의 완충효과*

Adjustment of Single Parent Family
- The Buffering Effect of Family Resilience

안동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교수 현은민*

Dept. of Family Environment & Welfare, Andong Univ.
Professor : Hyun, Eun-Min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buffering effect of family resilience between family stress and adjustment of single parent family based on family resilience approach.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ed: First, single parents who had a lower level of family stress and a higher lever of family resilience reported a higher level of family adjustment. Second, family stress especially economic stress and relational stress influenced negatively on adjustment of single parent family. Family belief system, organizational pattern and communication processes of the three sub-factors of family resilience influenced positively on family adjustment. However the sub-factors of family resilience had more powerful effects than family stress.

Third, family belief system, organizational pattern and communication processes of the three sub-factors of family resilience had a moderating effect between family adjustment and psychological stress and between family adjustment and relational stress. Especially the three sub-factors of family resilience had a buffering effect between family adjustment and relational stress.

The results of this study had important implication for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The study showed that adjustment of single parent family could be significantly explained by family resilience rather than family stress. Accordingly strength perspective-based intervention focused on family resilience would be more effective than deficit perspective-based intervention based on family stress.

▲주요어(Key Words) : 한부모가족의 적응(adjustment of single parent family), 가족탄력성(family resilience), 스트레스 (stress)

I. 서 론

1960년대 이후 산업화 사회로 전환된 우리나라의 가정은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가치

관의 변화로 인해 핵가족의 보편화와 더불어 단독가구의 증가, 이혼율과 재혼율의 증가 등 여러 이유에 의해 과거의 전통적인 가족(the family)이 해체되고 있으며 그 결과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가족(families)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다양한 형태의 가족 중 가장 빠른 증가를 보이는 가족형태 중의 하나가 한부모가족이다.

통계청(2004) 자료에 의하면 전체 가구 중 한부모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은 85년 6.2%, 90년 5.8%, 95년 9.8%, 2000년

* 이 논문은 2005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5-041-C00486).

** 주 저 자 : 현은민 (E-mail : emh@andong.ac.kr)

10.9%로 증가하였다. 이들 중 80%가 여성한부모 가족이며 특히 30대와 40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중년남성의 사망률을 증가와 급증하는 이혼율에 의해 그 비율의 증가를 예측할 수 있다.

한부모 가족이란 “이혼, 별거, 사망, 유기 등 여러가지 사유로 양친 중의 한쪽과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따라서 자녀의 보호를 누가 맡느냐에 따라 모가 주 양육자이면 여성 한부모가족으로 부가 주 양육자이면 남성 한부모 가족으로 불리게 된다(장혜경 등, 2001).

다양한 가족형태의 출현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다양한 가족의 상당비율을 차지하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결손, 결핍의 의미가 강한 편부모 가족이라는 용어 대신에 한부모 가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부정적인 의미 보다는 단지 한부모만이 있는 정상적인 가족의 범주로 보기 위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가족의 변화와 다양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정상적·규범적 가족과 비정상·결손, 위기의 가족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존재한다. 한부모 가족에 대한 국내의 연구들은 가족기능에서 구조적인 차이로 인해 심리 사회적 적응상 문제가 많거나 문제를 발생시키는 확률이 높은 집단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우리 사회는 그 동안 한부모 가족 = 결손가족 = 비정상가족 = 불완전한 가족이라는 식의 구조기능론적인 시각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한부모 가족의 쟁점을 문제로 해석하는 관점에서 가족 내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의미를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부모 가족이 늘면서 사회나 학계에서 한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하여 한부모 가족에 대한 기준의 연구가 주로 편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김정자, 1985, 1998; 김태현·조희선, 1991)와 편모나 자녀의 적응에 관한 연구(강혜구, 1987; 고성혜·한유진, 1995; 김영희 등, 1995; 신화용·조병은, 1996; 정현숙·서동인, 1996; 한경혜, 1991), 편모 자녀관계와 심리적 복지(김오남, 1998; 김오남·김경신, 1998)에서 최근 연구에서는 한부모 가족이 하나의 가족형태로 어떻게 잘 기능할 수 있을 것인가로 연구의 초점이 옮겨지고 있다(공선영, 2000; 조병은 등, 1998; 현은민 등, 2006).

한부모가족은 다양한 어려움으로 인해 이들에 대한 문제점이나 취약점만 크게 부각될 수 있고 실제로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다. 한부모 가족이 겪는 과중한 역할부담, 경제적 어려움, 자녀양육과 교육문제의 심각성, 정서적 문제 등의 어려움은 가족구성원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게 되고 실제로 많은 선행연구들(조희선, 1991; Burden, 1986; Richards & Schmiege, 1993)이 일반가족보다 한부모가족의 스트레스가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성 한부모 가족은 소득의 감소 또는 상실로 인한 경제적 문제와 자녀양육 문제, 역할긴장 등과

관련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김미숙 등, 2000; 김영희, 1996; 김오남·김경신, 1998), 남성 한부모가족은 모의 부재로 인한 자녀의 정서적 문제, 가사부담 등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김선미, 1999; 조홍식 등, 1997).

그러나 모든 한부모가족이 동일한 부적응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며 어떤 가족은 역경을 극복하여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성장해가는 가족들이 있다. 한부모가족이 되면서 이전의 가족 내 갈등관계가 해소되고 부모자녀간 심리적·정서적으로 가까워지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이소영·옥선희, 2002) 가족구조나 경제적 부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부각됨으로써 한부모가족으로의 변환기를 거치면서 가족관계가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은 간파되고 있다(최희경·이인숙, 2005).

‘건강한 가족’은 최근 가족 연구에 있어서 점차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개념으로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고, 개인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데 있어 가족의 중요성을 간파해서는 안 된다는 지각아래 제기되고 있다. 가족학자들은 고위험과 스트레스 상황에서 조차 매우 긍정적인 적응을 하는 일단의 가족들을 발견하고 그 요인이 무엇인가에 주목하게 되었다. 그 연구과정에서 외국에서 90년대 후반 가족탄력성(Family resilience)개념이 새롭게 이론적 접근법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가족탄력성 연구는 과거의 부적응 요인을 밝히고자 하는 결점관점 중심의 연구에서 강점관점에 기초하여 가족의 부적응이 아닌 고위험가족의 성공적인 적응을 탐색하고자 한다(Kosciulek et al., 1993; Lin, 2000; Patterson & Garwick, 1994).

가족탄력성은 가족이 위기와 스트레스에 적응하고 역경으로부터 회복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Hawley & Dehaan, 1996). 가족탄력성 접근은 대처와 적응의 과정에서 가족을 하나의 기능적 단위로 보고 고위험 혹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그들이 직면하는 어려운 도전으로부터 견디고 재생하도록 돋는 주요한 상호작용적 과정을 밝히고 강화하는, 기본적으로 가족의 강점에 초점을 둔 관점이다. 즉 가족구성원의 협동과 체계들 간의 관계적 탄력성을 통한 도전 극복의 과정을 가지는 탄력적인 가족은 역경 속에서도 성장발달하며 가족전체와 구성원들 사이의 균형적인 발달을 성취한다. 따라서 가족탄력성은 가족을 탄력적으로 발달할 수 있는 역동적 단위로 간주하고 고위험에 직면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가족의 자원, 탄성, 회복력을 보다 강조하며 가족탄력성에 대한 연구는 가족과정(family process)에 초점을 두고 가족의 관계적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Walsh, 1996; Hawley, 2000). 가족이 어떻게 위기상황에 맞서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완화시키는지 또한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족을 재조직하고 추구해야 할 삶에 재투자하는지, 역경을 극복하는 가족과정이 대처와 적응의 핵심이 된다(McCubbin et al.,

1998; Walsh, 2002).

이 접근은 전통적인 결핍모델 시각에서 큰 변화를 가져와서 손상당한 심각한 위험에 처한 가족(distressed family)이라는 시각으로부터 성장과 재생의 잠재력을 가진 도전받고 있는 가족(challenged family)이라는 방향으로 시각을 전환시킴으로서 위기상황에서 취약한 부부와 가족을 강화하는 목적을 가진 연구와 개입, 예방적 접근에 있어서 개념적 지도(conceptual map)로서 가치를 지니며(Walsh, 2002) 매우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Hawley & Dehaan, 1996).

따라서 최근의 가족탄력성 연구 경향은 다양한 가족유형에 탄력성 모델을 적용하여 가족적응을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대부분 가족탄력성을 가족적응을 위한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소개하고 있다(McCubbin & McCubbin, 1993; Patterson & Garwick, 1994; Walsh, 2002). Patterson(1991)은 만성질병을 가진 아동의 성공적인 가족적응의 핵심으로 가족탄력성을 제시하였고 Kosculek와 McCubbin(1993)은 뇌손상 가족의 적응을 설명하는 이론적 모델로서 탄력성 모델의 유용성을 설명하고 있다. Lustig(1996)도 성인 초기 정신지체인의 가족적응을 설명하는 유용한 틀로서 탄력성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탄력성 연구의 방향은 개인탄력성의 경우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상호작용 효과를 통하여 탄력성이 향상되며 가족탄력성에서는 가족탄력성 자체가 가족스트레스나 위험요인과의 상호작용 효과를 통하여 적응이 향상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 가족적응에 대해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효과뿐 아니라 가족적응에 대한 스트레스의 영향을 감소시키는 완충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Roosa, 200; Luthar et al., 2000; 김미옥, 2001 제인용).

그러나 국내에서는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인탄력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을 뿐 가족탄력성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장애아 가족을 대상으로 이제 초기단계에 있고 한부모가족에 적용한 연구는 1편(구정화, 2005)이 있으나 가족탄력성의 완충역할을 밝히지 않았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탄력성 접근은 이혼이 급증하고 중년남성의 사망률이 높아 한부모가족이 급격히 늘어나는 한국가족의 현실에서 문제중심 접근으로부터 건강가족 및 강점중심 접근으로의 연구와 개입의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가족적응의 핵심을 스트레스와 위기에 초점 맞추기보다 역경에 직면하여 보다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적응하는 한부모 가족의 회복과정에 중점을 두는데 그 유용성을 설명할 수 있다. 이는 가족탄력성이 개인과 가족의 역기능을 야기하는 조건 하에서도 개인과 가족이 발달하고 회복하는 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탄력성 접근을 이론틀로 하여 한부모가족을 기능적 단위로 보고 가족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탄력성의 영향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한부모가족의 적응이 스트레스와 가족탄력성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고 둘째, 한부모가족의 스트레스와 적응의 관계에서 가족탄력성이 완충역할을 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한부모가족의 적응에 가족탄력성의 영향력을 파악하여 건강한 가족으로서의 특성을 기를 수 있는 상담,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복지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한부모가족의 적응은 스트레스와 가족탄력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한부모가족의 가족탄력성은 스트레스가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완충효과를 갖는가?

II. 이론적 배경

1. 가족탄력성 접근(Family Resilience Approach)

탄력성(resilience)은 역경을 겪으면서 개인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잃었지만 이전의 적응 수준으로 돌아오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탄력성에 대한 연구들의 중심 개념은 회복력과 스트레스 이전의 적응수준으로의 복귀 능력이며 탄성력 또는 복원력, 회복력, 적응유연성의 용어와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다. 사람들 중에서도 환경적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에 잘 대처하고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될 때도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사람들을 탄력적 혹은 탄력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가족탄력성(family resilience)은 가족이 기능적 단위로서 역경에서 긍정적인 적응을 이루는 역동적인 과정을 포함한다(Luthar et al., 2000). 즉 가족탄력성은 고위험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가족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위기상황에 직면하여 적응적이 되고, 변화에 직면하여 혼란에 저항하며 보다 기능적인 가족이 되도록 돋는 가족의 특징, 차원, 속성을 의미하며(McCubbin & McCubbin, 1988) 가족의 잠재적인 회복과 성장을 확인하며 가족이 어려운 도전을 견디고 원위치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상호작용 과정을 의미한다(Walsh, 1998).

한편 NNFR(The National Network for Family Resiliency, 1993)은 가족탄력성을 삶의 도전에 긍정적으로 대응하는 강점을 구성하는 가족의 능력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은 첫째, 탄력성이 곤경에 직면하여 표면화 된다는 점과 둘째, 병리보다는 건강 및 강점

관점으로 가족을 조명하며 세째, 탄성의 속성을 가진 개념으로 보고 있다(Hawley & Dehaan, 1996).

개인탄력성과 가족탄력성은 고위험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적용하는 개인과 가족에 관심이 있다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다. 개인탄력성은 고위험에 처한 개인을 기능적 단위로 보고 생태학적 시각에 기초하여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을 밝히고자 한 것이라면 가족탄력성은 가족을 하나의 역동적 단위로 간주하고 가족탄력성과 가족내·외적 변인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강조되고 있다(김미옥, 2001).

가족탄력성은 대표적으로 McCubbin과 McCubbin(1993)이 double ABCX 모델을 발전시켜 개발한 탄력성 모델과 그리고 가족이 스트레스에 견디고 위기에서 회복되는 과정을 밝힌 Walsh(1998)의 이론이 두 축을 이루며 중요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McCubbin과 McCubbin(1993)은 가족탄력성 모델을 가족형태, 가족 schema, 가족자원, 가족기능, 문제해결과 대처, 그리고 사회적 지지로 구성하고 있다. Walsh(1998)는 가족탄력성 접근의 핵심과정을 신념체계(belief system), 조직패턴(organizational pattern), 의사소통 과정(communication process)으로 구성하였고 이 세 가지 구성요인이 상호 작용하면서 가족탄력성의 시너지효과를 갖는다고 한다. 본 연구는 Walsh의 가족탄력성 접근이 역동적 실체인 가족의 특성을 잘 반영하여 가족과정(family process)의 차원에서 가족 탄력성을 구조적, 기능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또한 가족스트레스보다 가족적응을 보다 강조하면서 강점관점과 탄력성 시각이 부각되어 가족을 다차원에서 조명하는 이점이 있으므로 (김미옥, 2001) 한부모가족의 적응에 대한 이론적 틀로 활용하고자 한다.

Walsh(1998)는 가족탄력성의 강화요인으로 신념체계, 조직 패턴, 의사소통 과정을 구성하였다. 가족의 신념체계는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 긍정적 시각, 초월과 영성으로 구성된다. 첫째,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 능력은 가족들이 위기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가 하는 것으로 탄력적인 가족은 위기를 하나의 도전으로 인식하여 도전에 따른 변화의 필요성을 더 잘 수용할 수 있으므로 탄력성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Antonovsky & Sourani, 1988).

둘째, 역경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가진 가족은 강점과 잠재력을 초점을 두고, 가능성은 인정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는 노력의 자세와 동시에 변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수용하고 인정하는 가족을 의미한다.

셋째, 초월과 영성은 더 큰 가치와 목적을 지향하며 역경을 통하여 배우고 성장한다는 자세를 갖는다. 탄력적인 가족은 도움이 필요할 때 자기 안에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종교나 사회적 지지체계, 전문가를 찾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조직패턴은 가족 단위의 통합을 지지하는 것으로, 유연성,

연결성, 사회적·경제적 자원으로 구성된다. 첫째, 유연성이란 가족이 조직과정에서 안정성(homeostasis)과 변화(morphogenesis)사이의 역동적인 조화를 통해 생활도전에 반응하며 변화를 허용하는 안정된 가족구조를 유지하고자 한다는 것이다(Olson, 1993; 김미옥, 2001 재인용). 여기서 안정성이란 예측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규칙, 역할, 상호작용 유형을 의미하며, 유연성이란 필요할 때 변화할 수 있는 능력으로 역할안정성과 융통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탄력적인 가족은 스트레스나 긴장이 유발되는 상황이나 사건에 직면했을 때 가족원간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위기를 술기롭게 대처할 수 있다.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 가족의 역할을 분담하거나 변화하는 융통성의 능력은 탄력적인 가족이 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둘째, 가족의 연결성(connectedness)은 웅집력의 개념과 유사한 것으로 가족구성원의 서로에 대한 정서적 결합을 의미한다(Olson, 1993). 가족을 분열시키는 위기상황에 서로 지지해주고 협력하고 혼신하며 어려운 시기에 함께 하는 것에 의해 가족탄력성이 강화되며 또한 가족원 서로의 차이와 개별성을 존중해주고 가족을 보호하고 이끌어가는 리더쉽이 요구된다(Walsh, 2002). 잘 기능하는 가족은 구성원 사이의 명확한 경계를 유지하며, 구성원들은 자신의 사고, 감정, 행동에 책임을 갖는다.

셋째, 가족의 사회·경제적 자원은 가족이 내외 환경 자원을 얼마나 잘 조직하고 있는가와 관련된다. 잘 기능하는 가족은 개방체계를 유지하며 가족 주변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자원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소통 과정은 가족탄력성에서 중요한 핵심적 요소로서 명료한 의사소통과 개방적 감정표현, 상호협조적 문제해결과정으로 구성된다(Walsh, 1998). 첫째, 의사소통의 명확성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효율적인 가족기능의 본질적인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Beavers & Hampson, 1993; Olson 1993). 의사소통의 명확성은 말과 행동에 있어서 분명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말한다. 불명확한 의사소통은 불안과 혼돈을 증가시키므로 특히 위기의 순간에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명확화는 매우 도움이 된다. 또한 가족구성원이 갖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공유된 이해와 인정은 가족적응과 대처에 매우 중요하다.

둘째, 개방적인 감정표현을 할 수 있는 가족은 즐거움, 희망뿐만 아니라 고통이나 공포 등의 광범위한 감정을 공유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가족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호 감정이입이 요구되며, 가능한 비난은 피하고 자신의 감정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셋째, 상호협력적인 문제해결은 특히 갑작스런 위기나 지속적인 도전을 다루어야 하는 가족기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탄력적인 가족의 특성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이다(Beavers & Hampson, 1993). 상호협력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문제에 관여되어

있는 사람이나 잠재적 자원을 가진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결정된 의견을 공유하고 갈등을 다루어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탄력성 접근은 무엇이 가족의 문제인가에서 현재 가족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무엇이며 어떤 가족과정을 통하여 가족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 Walsh(1998)의 이론을 적용해보면 가족이 어떠한 신념체계를 갖고 있는가는 한부모가족으로서의 변화과정에서 경험하는 가족의 경험을 해석하며 재조직하는 틀을 제공한다. 탄력적인 가족은 한부모가족으로서의 역경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며 여러 가지 어려움에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극복할 수 있는 상황으로 재정의 함으로써 인내하고 노력하는 힘을 강화하여 가족의 강점을 확인한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으로서 적용하는 과정에서 가족의 구조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유대감이 높고 역할분담을 통하여 가족을 재조직하여 다양한 어려움에 협조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며 서로 지지해주고 가족의 위기상황에서 도구적,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사회적, 경제적 자원을 잘 활용한다면 탄력적인 한부모가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의사소통 과정은 위기상황에서 개방적으로 감정을 표현하게 하고 상호협조적으로 문제해결을 하도록 의사소통을 명확히 하여 가족탄력성을 증진시키므로 한부모가족의 문제점과 한부모로서의 역할의 어려움, 자녀적응의 어려움을 개방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가족 내의 의사소통이 보다 명확하고 상호협력적인 문제해결을 해 나갈 수 있다면 한부모가족도 건강하고 탄력적인 가족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2. 한부모 가족의 스트레스

한부모가족의 스트레스 관련 선행연구 결과들은 크게 경제적, 자녀관계, 심리적, 사회적 스트레스를 제시하고 있다.

1) 경제적 스트레스

한부모 가족은 한쪽 배우자의 부재로 인하여 가정생활에 서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발생되고 가족관계, 자녀양육 및 가사노동 등 가족기능 수행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적 문제는 특히 여성 한부모가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 남성 한부모가족의 경우도 대다수의 부가 저학력과 저소득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녀양육과 가사를 고려한 직업의 선택기회가 적어지고 가사를 대리인에게 맡길 경우 지출이 늘어나는 문제로 인해 빈곤한 상태에 처해있는 경우가 많다(신건희, 1995). 김영희(1996)는 모가 느끼는 스트레스 중 가장 심각한 것은 경제적 스트레스로 조사하였다. 여성 한부모가족의 경우 부의 상실로 인해 소득이 감소되

거나 상실되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중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여성 한부모 가족의 빈곤율은 양친가족이나 남성 한부모 가족의 빈곤율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스트레스는 다른 모든 문제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경제적 안정이 한부모 가족의 안정화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2) 자녀관계 스트레스

한부모가족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자녀양육과 교육문제를 꼽고 있다. 조미희(1999)는 일하는 모는 직장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야하기 때문에 가정을 돌보거나 자녀를 양육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남성 한부모가족의 부도 자녀양육에서 문제가 많고 자녀들은 정서적인 인격함양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본다. 부는 직장 생활을 계속해야 함과 동시에 아내가 맡았던 가사 일까지 담당해야 하는데 특히 1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더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

남성 한부모가족의 경우 자녀와 부의 부적응으로 인한 가족관계상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데 남성 한부모가족의 자녀는 모의 부재로 인해 감정이나 애정을 표현하는 등의 표현적 경험을 가질 기회가 박탈되어 가족원을 비롯한 타인과의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가진다. 특히 부가 딸을 양육하는 경우는 동일시 할 수 있는 모가 부재함으로 인해 더 많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조홍식 등, 1997). 여성 한부모가족의 경우도 모와 자녀들 모두 양부모가족에 비해 문제해결능력, 가족구성원간의 의사소통, 역할기능, 정서적 반응, 정서적 관여, 자녀에 대한 행동 통제 등 가족기능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권복순, 2000).

3) 심리적 스트레스

여성 한부모는 외로움으로 고통을 느끼며 부부중심사회에서 배우자가 없는데서 비롯되는 스트레스를 자주 경험하게 된다(Fine, Donnelly & Voydanoff, 1986). 배우자와의 이별로 인한 상실감, 가족에 대한 책임감, 슬픔, 죄책감으로 인하여 심리적인 부적응 상태가 나타나며(공세권·조애저, 1995; 김영희, 1996; 구정화, 2005 재인용),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통제할 수 없다는 무력감과 세상에 대한 자신감의 결여, 절망감, 사회로부터의 거부감, 부양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한 부정적 평가, 자기자신을 무능력하고 부적절한 존재로 느끼는 등의 과정을 통해 우울과 불안, 소외감에 빠져들 수 있다(조홍식 등, 1997). 이러한 모에게 특히 부담이 되는 것은 자신의 역할 여하에 따라 자녀나 가족의 문제가 완화될 수가 있고 심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남성 한부모가족도 모의 상실로 인한 구조상의 결손과 그로 인한 역할수행의 차질, 역할 재설정 등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적응과정에서 모자가정 못지않게 많은 정서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부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정서상의 문제, 자학감, 생계부양에 대한 책임, 사회활동의 위축, 부자가정에 대한 사회의 왜곡된 인식 및 낙인에 대한 두려움, 쉽지 않은 정서적 반응 표출 등을 부정적 방향으로 변화 할 소지를 가지고 있다(김선미, 1999).

4) 사회적 스트레스

한부모가족은 결손가족이라는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한다.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고독감을 느끼는데 특히 이혼한 편모의 경우 사회활동에 참여하거나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주변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응에 더욱 어려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조희선, 1991; 한경혜, 1993).

부모들은 가족해체를 경험하면서 단지 한쪽 배우자만 잃는 것 뿐 아니라 배우자와 관련된 사회적 지지망도 잃게 되고 대부분 생계유지를 위해 취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전의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 할 수 없어 협소한 지지망을 가질 수 밖에 없게 된다. 송성자(1987)는 한부모가정의 경우 친척과의 상호작용은 한부모가정이 되기 전보다 훨씬 줄어드는 경향이며 남성 한부모가족의 경우보다 여성 한부모가족의 경우에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여성 한부모가족은 친척과의 관계에서 점점 더 고립화의 현상을 나타나게 된다.

가족결손으로 인한 가족환경의 변화, 이사 등의 물리적 공간의 변화로 인한 사회적 관계망의 단절은 자녀들에게도 사회적 지지를 감소시키고 사회적 상호작용의 단절 또는 감소를 초래하여 대인관계상의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결손 가족의 자녀들은 양친가족 자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의 사회적 기술을 보이고 있으며, 친구가 적고 친구와 보내는 시간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Santrock, 1975).

살펴본 바와 같이 한부모가족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관련 선행연구 결과는 모가자정과 부자가정의 가족형태에 따라 스트레스 비중이 다른 면도 있지만 한부모가족 공통적으로 경제적 스트레스와 자녀관계 스트레스를 가장 크게 경험하고 있고 심리적 스트레스와 사회적 스트레스도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를 경제적, 관계적, 심리적, 사회적 스트레스로 나누어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가족탄력성과의 관계를 살펴보자 한다.

3. 한부모가족의 적응과 가족탄력성

한부모가족의 적응에 관련된 선행연구는 주로 편모와 자녀의 적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가족탄력성의 개념을 적용한

국내의 연구는 구정화(2005) 외에는 찾을 수 없다. 외국의 경우도 이혼과정이나 이혼자를 대상으로 개인탄력성을 적용한 연구는 소수 찾을 수 있으나 한부모가족에 가족탄력성의 연결을 시도한 연구는 찾기가 어렵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의 건강성과 강점에 기초한 가족적응과 가족탄력성의 하위요인과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정화(2005)는 한부모를 대상으로 가족탄력성이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가족탄력성의 하위요인인 가족도식, 내구력, 대처반응, 의사소통의 영향력을 밝혔다. 문제해결 의사소통 시 선동적인 의사소통 유형을 많이 활용하고 가족의 통제력과 가족관여가 있을때 가족적응이 잘 될 수 있다고 하였다. 현은민 등(2006)은 건강가족관점을 이론으로 하여 한부모가족의 건강성 관련 특성과 변인에 관한 연구에서 건강한 한부모가족의 특성으로 의사소통과 가족유대, 자녀적응과 대처능력을 꼽았고 한부모가족의 건강성은 개인적 자원인 자아존중감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을 밝혔다.

여성 한부모가족의 경험과 적응에 관한 연구 결과에서 공선영(2000)은 여성 한부모가족으로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당당하게 생활하는 '건강한 여성 한부모가족'의 공통점 6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첫째, 사별이나 이혼으로 모든 경제적 자립을 통해 생활에 자신을 얻는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되고 둘째, 자유로운 시간을 통해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고 발전시키며 셋째, 자녀와의 유대감으로 모자가족의 어려움 극복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넷째, 역할수행 측면에서 스스로 가장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에 신념을 갖게 되고 다섯째, 대인관계 측면에서 주위사람들과 더 가까워지는 좋은 계기가 되며 여섯째, 어려움이나 문제 상황에서 주로 개인적, 적극적 대처전략을 활용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여성 한부모가족의 경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여성 한부모가족으로서의 변화에 대처하고 가족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한부모가족의 적응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Quinney와 Fouts(2003)은 이혼회복 워크샵에 참석한 이혼자를 대상으로 개인탄력성과 이혼 후의 적응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워크샵 참석 이전의 개인탄력성의 수준이 이혼 후의 적응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이 결과는 이혼 후의 회복을 돋기 위해 자존감 향상, 문제해결능력 증진과 감정의 이해와 조절능력 향상을 돋는 워크샵과 같은 교육에 참여하여 지지를 추구하고 교육을 통해 발전하는 자체가 개인의 탄력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탄력적인 사람이 주요한 삶의 도전에 대처를 더 잘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Garmezy & Masten, 1986).

Bevvino와 Sharkin(2003)은 이혼으로 인하여 중요한 관계의 상실과 친근한 일상생활의 와해를 경험함으로써 부적응의 고통을 경험하는 이혼자를 대상으로 이혼 후의 생활에 의미를 찾는 것과 적응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이혼 후의 적응

을 예측할 수 있는 여러 변인 중 이혼 후의 생활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적용을 설명할 수 있는 강력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의미추구와 긍정적인 신념체계는 고통에 맞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동기가 되며 위험요인의 충격이나 상처로부터 회복되어 성공적인 삶을 주도하게 되는(Folkman & Lazarus, 1980) 긍정적인 심리적 적용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Frankl, 1963). Dixon(2002)의 연구에서도 적용유연성과 대처방안은 긍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며 정신적 신념의 자각과 신뢰감이 작용한다고 밝혔다.

자녀적응에 관련된 선행연구결과를 살펴보면 Linker 등(1999)은 가족기능이 부모 이혼 후에 아동의 적용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 가족갈등의 감소, 부모역할의 일관성, 부정적 생활상의 변화의 최소화가 부모의 이혼에 따르는 아동의 적용에 특히 중요함을 밝혔다. Kelly와 Emery(2003)는 이혼과정의 자녀의 적용은 이혼 후의 가족과정이 위험 또는 탄력성을 예측할 수 있는 강력한 요소임을 밝혔다. 보호요소로서 탄력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아동의 적용에 중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부모-자녀 관계의 질이 부모의 이혼이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완충자원이며(Clark & Clifford, 1996) 적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Peterson & Zill, 1986).

부모의 태도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 모의 적대적이고 통제적인 양육 태도는 자녀 적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Booth와 Amato(1991)는 92명의 이혼자녀를 대상으로 학업성취, 도덕성, 심리적 적용, 자아존중감, 그리고 사회관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적용을 살펴본 결과 부부제 후 모의 양육기술, 모의 적용상태, 자녀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모의 지지적 태도가 자녀 적용에 주요 변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는 긍정적인 가족관계가 영향을 미친다(Cooley, 1964; 강석기, 2006 재인용). 가족과 관련된 자아존중감은 상호관계를 통해 가족들에게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비쳐졌는지의 경험에 따라서 태도가 결정되므로 부모와의 친밀감(이은미, 2001), 가족의 응집과 적용(김미화, 2003) 같은 가족관계가 주요한 관련변수이다. 정미현(2002)도 자녀의 적용유연성은 부모와의 관계가 애정적이고 성취적으로 지각될수록 좋게 형성된다고 하였다.

여성한부모를 대상으로 한 가족환경과 사회적 지원에 대한 연구에서 비교적 제한된 지원을 가지고 있으나 경제적 자립을 하고 있고 여성한부모와 자녀 모두 스트레스 상황에서 잘 적용하고 있으며 모가 삶의 의욕을 갖고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다(김미숙, 2000; 신화용·조병은, 1996). Melissa(1994)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조사에서 모의 80%가 그들의 자녀와의 관계에서 변화를 경험하였으며 그들 중 91%는 긍정적인 방

향으로 변화하였다고 하였다. 즉, 여성 한부모가족이 됨으로써 혼자 양육하는데 필요한 부차적인 책임으로 인해 자녀들과 함께 있는 시간은 줄었지만 자녀와의 친밀성과 자녀에 대한 이해의 영역에 있어 긍정적인 변화를 인정하였다. 신화용과 조병은(1996)은 모와 자녀관계의 유대감에서 여성 한부모가족이 양부모 가족에 비해 차이가 없다고 밝혔으며 이 애재(1999)도 한부모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용수준은 양부모 자녀와 비교해 볼 때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McNurlen(1993)의 한부모가족과 양부모가족의 탄력성을 비교한 연구에서 아동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간에 그리고 가족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간에 차이가 없음을 밝혔다.

그리고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은 양부모 가족의 자녀들보다 책임감과 독립심이 더 강하고 의사결정에서 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 한부모가족의 자녀들이 다른 형태의 가족들의 자녀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보이며, 집안일에 있어서도 책임을 더 가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가족의 결속력과 더불어 책임의식은 가족 내에서도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는 현실과 비교할 때 한부모 가족이 갖는 강점임이 분명하다(김영희, 1996).

한부모가족의 적용에 가족탄력성의 완충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볼 수가 없어서 관련연구를 살펴보았다. 탄력성 연구에 있어서 상호작용효과는 중요한 핵심으로 지적된다.

가족탄력성 관련 연구결과들은 가족탄력성이 가족스트레스와의 상호작용 효과를 통하여 가족적용을 잘 설명하는 조절변수임을 제시하고 있으며 가족적용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주효과와 스트레스의 영향을 감소시키는 완충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Luthar et al., 2000; Roosa, 200; 김미옥, 2001 재인용).

김미옥(2001)은 장애아동가족의 적용에 대한 가족탄력성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가족탄력성이 가족적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가족스트레스와 가족적용의 관계에 대한 가족탄력성의 조절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가족탄력성이 치매노인 부양가족의 적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윤수희, 2004)에서도 부양가족의 스트레스가 가족적용에 미치는 부적영향을 감소시키는 가족탄력성의 조절효과와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박현선(1998)은 빈곤청소년의 학교적용유연성에 관한 연구에서 가족갈등과 같은 위험요인의 직접적 영향력을 유의하지 않았으나 부모의 양육태도나 가족의 지지와 같은 보호요인을 통한 매개적 완충효과를 제시하였다. 강석기(2006)는 청소년의 적용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계 변수를 설명하는 데 자아존중감이 가장 큰 간접효과를 그리고 내외통제성이 직접효과가 가장 큰 매개변수들로 나타나 매개변수의 중요성을 밝혔다.

Johnson 등(1998)은 악물남용 고위험 청소년의 위험요소를 낮추기 위한 탄력성의 완충효과에 관심을 가져 가족탄력성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가족탄력성의 강화는 약물사용의 빈도와 정도를 감소시키며 정적 조절효과를 나타내었다. Criss 등(2002)의 가족역경, 또래관계와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긍정적 또래관계가 가족역경과 아동의 문제행동 사이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Rutter(1987)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복지가 청소년 복지에 영향을 줌으로서 결과적으로 보호요인이 위험요인의 효과를 감소 또는 중재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Lin(2000)은 뇌성마비 아동가족을 대상으로 대처와 적응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긍정적 대처전략이 가족적응을 활성화 시키며 긍정적 가족수용과 영적 지지에 크게 영향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부모가족의 적응에 개인탄력성과 신념, 부모자녀 유대와 사회적 자원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자아탄력성 수준과 긍정적 신념, 가족유대감과 사회적 자원은 가족탄력성의 중요 하위요인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별요인이 아닌 가족탄력성 통합적인 측면에서 가족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탄력성 연구의 핵심은 스트레스를 완화하여 가족적응에 도움을 주는 가족탄력성의 조절변수로서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있

으나 한부모가족의 적응에 가족탄력성의 완충효과를 살펴본 연구가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 조사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사별 또는 이혼 등으로 인하여 한부모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최소한 한명 이상의 자녀와 살고 있는 한부모 450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한부모 50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거쳐 문항을 수정 보완한 후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D시, S시, Y시의 대도시와 A시, G시, 0시의 소도시의 구청, 동사무소, 모자원, 복지기관 등의 관련기관에 협조를 구하여 한부모 가정의 부모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부실자료나 잘못 기재된 자료를 제외하고 368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68

구 분	빈도(%)	구 분	빈도(%)
성 별	남 자 121(32.9)	직 업	농어업 6(1.6)
	여 자 247(67.1)		노동직 62(16.8)
연 령	20대 11(3.0)		전문직 16(4.3)
	30대 98(26.6)		관리직 15(4.1)
	40대 171(46.5)		기술직 20(5.4)
	50대 71(19.3)		사무직 35(9.5)
	60대 이상 17(4.6)		판매직 55(14.9)
자녀 수	1명 105(28.5)		서비스 68(18.5)
	2명 204(55.4)		무 직 36(9.8)
	3명 45(12.2)		전업주부 23(6.3)
	4명 이상 14(3.8)		기 타 31(8.4)
학 력	무 학 3(.8)		무응답 1(.3)
	초 졸 15(4.1)		
	중 졸 47(12.8)		
	고 졸 189(51.4)		
	대 졸 101(27.4)		
	대학원이상 11(3.0)		
	무응답 2(.5)		
		한부모가족원인	사 별 88(23.9)
종 교	무 교 151(41.0)		이 혼 201(54.6)
	불 교 79(21.5)		별 거 37(10.1)
	기독교 92(25.0)		가 출 26(7.1)
	천주교 35(9.5)		독신부모 9(2.4)
	기 타 10(2.7)		무응답 7(.1.9)
	무응답 1(.3)		
한부모가족기간	1년 미만 29(7.9)		
	3년 미만 105(28.5)		
	5년 미만 95(25.8)		
	7년 미만 53(14.4)		
	10년 미만 85(23.1)		
	무응답 1(.3)		

<표 1> 계속

구 분	빈도(%)	구 분	빈도(%)	
월수입	없 음	12(3.3)	경제문제	206(56.0)
	100만원 미만	160(43.5)	양육문제	79(21.5)
	100-200만원	128(34.8)	심리문제	45(12.2)
	200-300만원	44(12.0)	사회편견	26(7.1)
	300-400만원	12(3.3)	기 타	9(2.4)
건강상태	무응답	2(.5)	무응답	3(.8)
	매우건강	34(9.2)		
	건 강	135(36.7)		
	보 통	104(28.3)	계	368(100.0)
	나 뽐	78(21.2)		
	매우나쁨	16(4.3)		
	무응답	1(.3)		

2. 측정도구

1) 가족적응

가족적응은 가족이 위기 후 새로이 적절한 균형을 성취하여 가족의 통합성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김미옥, 2001). 한부모가족의 적응을 측정하기위해 한부모로서의 생활만족도와 자녀의 긍정적 변화를 평가하는 총 2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생활만족도는 개인적 영역(자아감, 건강), 가족적 영역(가족관계, 역할수행), 사회적 영역(대인관계, 사회생활), 경제적 영역(경제상태)에서의 만족정도와 한부모 가족이 된 후 자녀의 긍정적 변화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매우 그렇다 까지의 5점 척도로 표시하게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적응을 높게 지각하는 것을 나타낸다. 가족적응 문항을 구성하기 위해 Singh 과 McBroom(1992)이 개발한 한부모 적응척도와 공선영(2000)과 이수경(2003)의 연구에서 사용한 생활만족도 척도, 신화용과 조병은(1996)의 연구에서 사용한 자녀의 변화 척도를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1$ 로 높게 나타났다.

2) 가족탄력성

한부모가족의 가족탄력성을 측정하기위하여 Walsh(1998)의 가족탄력성의 세 하위영역인 신념체계, 조직패턴, 의사소통 과정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1)신념체계

신념체계는 역경에 대한 의미 부여와 긍정적 시각을 나타내는 가족강점으로 구성하였다. 신념체계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5$ 로 나타났다.

의미부여는 한부모가족으로서의 구조나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가를 측정하는 CMS(Constructed Mea-

ning Scale, Fife 1995)척도를 사용하였다. CMS 척도는 8문항으로서 원래 질병에 대해 부여하는 의미를 측정하도록 고안된 것을 한부모가족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매우 그렇다 까지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역경에 긍정적 의미부여 능력이 높음을 나타낸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67$ 로 나타났다.

가족강점은 Olson(1993)이 개발한 가족강점 척도 12문항을 사용하였다. 가족강점은 가족원간의 성실성과 긍정적 사고방식, 가족에 대한 신뢰감을 나타내는 가족자신감과 일을 수행하는 가족의 능력, 함께 지내는 능력을 나타내는 가족의 일치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강점 정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3$ 으로 나타났다.

(2)조직패턴

조직패턴은 세 하위요소인 유연성, 연결성, 사회·경제적 자원으로 구성하였다. 조직패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9$ 로 나타났다.

유연성은 역할안정성과 융통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Epstein 등(1983)이 개발한 가족기능평가(FAD: The Family Assessment Device)척도 60문항 중 역할안정성 관련 9문항을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역할안정성과 융통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7$ 로 나타났다.

연결성은 가족간에 상호지지와 협력하면서도 자율성을 유지하는 가족의 유대를 나타내는 것으로 IPA(Index of Parental Attitude)척도 25문항 중 연구의 목적에 맞게 한부모와 자녀의 긍정적 관계를 나타내는 9문항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유대감이 높음을 나타낸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7$ 로 나타났다.

가족의 사회·경제적 자원은 NC-128 사회적 지원 문항 15문항을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가족,

친구, 사회로부터 받는 도움과 경제적 자원에 대해 5점 척도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의 사회·경제적 자원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6$ 으로 나타났다.

(3) 의사소통 과정

의사소통 과정의 의사소통의 명확성, 개방적 감정표현과 상호협력적 문제해결을 측정하기 위하여 FAD(Family Assessment Device) 척도의 문제해결차원, 의사소통차원, 역할차원, 정서반응차원, 정서적 관여차원, 행동통제차원의 7개 하위차원으로 구성된 문항 중 의사소통차원, 정서반응차원, 문제해결차원의 12문항을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의 의사소통 과정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5$ 로 나타났다. 하위요인인 의사소통 차원은 Cronbach's $\alpha = .65$, 정서반응 차원은 $\alpha = .60$, 그리고 문제해결 차원은 $\alpha = .74$ 로 나타났다.

3) 스트레스

한부모가족의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McCubbin 등(1980)의 FILE(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척도와 Holmes와 Rahe(1967)의 척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가족에 맞게 번안 수정한 조희선(1991)의 척도를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경제적 스트레스, 관계적 스트레스, 심리적 스트레스, 사회적 스트레스에 관한 문항들로 각 3문항씩 총 12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매우 그렇다 까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높게 인지하는 것을 나타낸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9$ 로 나타났고 하위요인인 경제적 스트레스는 $\alpha = .81$, 심리적 스트레스는 $\alpha = .77$, 사회적 스트레스는 $\alpha = .72$, 그리고 관계적 스트레스는 $\alpha = .65$ 로 나타났다.

4) 사회인구학적 변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성별, 연령, 자

녀수, 교육수준, 월수입, 직업, 종교, 건강상태, 한부모가족이 된 원인과 기간에 대해 조사하였다.

3.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WIN 1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스트레스 정도와 가족탄력성, 가족적응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하였다. 연구문제 1의 한부모가족의 적응이 스트레스와 가족탄력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고 연구문제 2의 한부모가족의 가족탄력성이 적응과 스트레스 간에 완충효과를 갖는지를 알기 위해 조절효과와 매개효과로 나누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스트레스, 가족탄력성, 가족적응의 일반적 경향

본 연구의 한부모가족의 스트레스 정도와 가족탄력성과 가족적응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한부모가족의 스트레스 수준은 5점 척도에서 평균 2.89에서 3.35 사이($SD = .70$ 에서 .84 사이)로 비교적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탄력성은 평균 3.25($SD = .39$)로 나타났고 하위요인인 신념체계는 평균 3.21($SD = .43$), 조직패턴은 평균 3.25($SD = .40$) 그리고 의사소통 과정은 평균 3.30($SD = .50$)으로 나타나 가족탄력성이 전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족적응도 평균 3.24($SD = .49$)로 비교적 높았다.

이 결과는 본 연구의 한부모가족이 전반적으로 스트레스가 높고 가족탄력성과 가족적응이 비교적 양호한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스트레스, 가족탄력성, 가족적응 수준

N=368

변인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경제적 스트레스	3.22	.84	1.00	5.00
심리적 스트레스	2.94	.70	1.00	5.00
사회적 스트레스	2.89	.74	1.00	4.67
관계적 스트레스	3.35	.80	1.00	5.00
가족탄력성	3.25	.39	2.03	4.67
신념체계	3.21	.43	1.83	4.67
조직패턴	3.25	.40	1.98	4.33
의사소통과정	3.30	.50	1.67	5.00
가족적응	3.24	.49	1.56	4.61

<표 3> 스트레스와 가족탄력성에 따른 가족적응

변인	집단	N	M	SD	T
경제적 스트레스	낮은	116	3.48	.49	6.679***
	높은	158	3.08	.47	
심리적 스트레스	낮은	85	3.57	.49	7.081***
	높은	108	3.07	.48	
사회적 스트레스	낮은	113	3.51	.48	7.302***
	높은	134	3.07	.46	
관계적 스트레스	낮은	96	3.56	.45	9.696***
	높은	143	2.98	.46	
신념체계	비탄력	120	2.92	.48	-11.326***
	탄력	103	3.59	.39	
조직패턴	비탄력	113	2.88	.46	-13.762***
	탄력	121	3.62	.37	
의사소통	비탄력	114	2.89	.42	-11.951***
	탄력	128	3.54	.43	

***p<.001

2. 스트레스와 가족탄력성 차이에 의한 한부모가족의 적응

스트레스와 가족탄력성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간에 가족적응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기위해 스트레스와 가족탄력성 하위요인별 평균값 $\pm 1/2$ SD를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표 3>.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관계적 스트레스 모두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가족적응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가족탄력성은 신념체계와 조직패턴과 의사소통 과정 점수가 높은 탄력집단이 낮은 비탄력집단에 비해 가족적응 점수가 높았다. 이 결과는 한부모가족의 적응이 스트레스 수준과 가족탄력성 수준에 따라 달라짐을 의미한다.

3. 스트레스가 한부모가족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족탄력성의 완충효과

가족탄력성의 완충효과(buffering effect)를 알기위해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와 매개효과(mediating effect)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Wheaton(1985)과 Lin(1986, 1991)은 완충효과를 상호작용 효과만으로 한정하여 보기보다 두 가지 완충효과 모델, 즉 조절효과와 매개효과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김성경, 2001; 윤수희, 2004 재인용).

1) 조절효과

가족탄력성 연구의 방향은 가족적응에 대해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효과 뿐 아니라 가족탄력성이 가족스트레스와의

상호작용효과를 통하여 가족적응을 보다 잘 설명하는 조절 변수임을 제시하고 있다(Roosa, 2000; Luthar et al., 2000; 김미옥, 2001; 윤수희,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가족탄력성이 가족스트레스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지 살펴보았다.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먼저 스트레스 변인들과 가족탄력성 변인들을 중심화(centering)하여 새로운 변수값을 구하고 중심화된 스트레스 변수값과 가족탄력성 변수값을 곱하여 상호작용 항(interaction term)을 만들어 생성된 상호작용 항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상관성을 나타내는지 검증하여야 한다(Hair et al., 1995). 이는 회귀분석 시 독립변인들이 상호관련이 있는 경우 두 변인을 곱한 값인 상호작용 항이 추가로 삽입되면 독립변인간의 지나친 상관, 즉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여 회귀분석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변수들의 중심화 과정을 거쳐 회귀방정식에 삽입한다(Hair et al., 1995).

스트레스가 한부모가족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족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다중공선성이 여부를 알기위해 독립변인들간의 상관관계 <표 4>를 살펴본 결과 가족탄력성 하위요인인 신념체계와 조직패턴간의 상관관계($r = .71$)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 VIF 값은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VIF값이 1~3 사이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로 인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모델 1에서는 가족적응에 대한 스트레스와 가족탄력성의 하위변인을 포함하여 주효과를 보았고 모델 2는 스트레스와 신념체계, 모델 3은 스트레스와

<표 4> 독립변인간 상관관계 분석

변수	1	2	3	4	5	6	7
1	1.000						
2	.656 **	1.000					
3	.565 **	.628 **	1.000				
4	.519 **	.618 **	.558 **	1.000			
5	-.315 ***	-.446 ***	-.447 ***	-.541 ***	1.000		
6	-.340 ***	-.383 ***	-.473 ***	-.488 ***	.709 ***	1.000 ***	
7	-.177 **	-.267 ***	-.352 ***	-.474 ***	.632 ***	.661	1.000

p<.01, *p<.001

1. 경제적 스트레스, 2. 심리적 스트레스, 3. 사회적 스트레스, 4. 관계적 스트레스, 5. 신념체계, 6. 조직패턴, 7. 의사소통 과정

<표 5> 스트레스와 탄력성이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호작용효과

모델	변인	가족적응				
		Beta	t	R Square	△ R Square	F
1	상 수		2.529			
	경제적 스트레스(a)	-.133	-2.778**			
	심리적 스트레스(b)	.003	.061			
	사회적 스트레스(c)	.086	1.785			
	관계적 스트레스(d)	-.098	-1.974*	.582		71.322***
	신념체계	.137	2.550*			
	조직패턴	.431	7.925***			
2	의사소통과정	.204	4.110***			
	상 수		2.711			
	경제적 스트레스(a)	-.107	-2.180*			
	심리적 스트레스(b)	.009	.168			
	사회적 스트레스(c)	.075	1.535			
	관계적 스트레스(d)	-.108	-2.160*			
	신념체계(e)	.133	2.482*			
3	조직패턴	.436	8.001***	.595	.013	47.328***
	의사소통과정	.184	3.698***			
	a*e	-.055	-1.101			
	b*e	-.138	-2.247*			
	c*e	.021	.378			
	d*e	.166	2.777**			
	상 수		2.931			
4	경제적 스트레스(a)	-.111	-2.325*			
	심리적 스트레스(b)	.042	.779			
	사회적 스트레스(c)	.071	1.480			
	관계적 스트레스(d)	-.134	-2.640**			
	신념체계	.140	2.637**			
	조직패턴(f)	.400	7.277***	.598	.017	48.160***
	의사소통	.200	4.028***			
5	a*f	-.058	-1.051			
	b*f	.154	2.257*			
	c*f	.020	.316			
	d*f	.153	2.667**			
	상 수		2.663			
	경제적 스트레스(a)	-.134	-2.743**			
	심리적 스트레스(b)	.034	.625			
6	사회적 스트레스(c)	.088	1.780			
	관계적 스트레스(d)	-.116	-2.334*			
	신념체계	.131	2.453*			
	조직패턴	.437	8.067***	.593	.012	47.227***
	의사소통(g)	.186	3.654***			
	a*g	.032	.602			
	b*g	.142	2.271*			
7	c*g	.032	.589			
	d*g	.159	3.033**			

*p<.05, **p<.01, ***p<.001

조직패턴, 모델 4는 스트레스와 의사소통 과정의 상호작용 항을 추가로 회귀분석에 포함하여 가족탄력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표 5>.

모델 1에서 가족탄력성의 하위요인인 조직패턴($\beta = .43$, $p < .001$), 의사소통 과정($\beta = .20$, $p < .001$), 신념체계($\beta = .14$, $p < .05$)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 경제적 스트레스($\beta = -.13$, $p < .01$)와 관계적 스트레스($\beta = -.10$, $p < .05$)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 결과는 경제적, 관계적 스트레스가 낮고 가족의 신념체계가 긍정적이고 조직패턴이 안정적이고 의사소통 과정이 원만하여 가족탄력성이 높을수록 가족적응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전체 설명력이 58.2%로 나타나 스트레스와 가족탄력성이 가족적응을 잘 설명함을 알 수 있다<표 5>.

스트레스와 신념체계의 상호작용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모델 2에서는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1.3% 증가하여 스트레스와 신념체계의 상호작용 변수가 가족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수임을 나타내며 59.5%의 설명력을 보였다. 조직패턴($\beta = .44$, $p < .001$), 의사소통 과정($\beta = .18$, $p < .001$), 신념체계($\beta = .13$, $p < .05$)의 가족탄력성과 경제적 스트레스($\beta = -.11$, $p < .05$)와 관계적 스트레스($\beta = -.11$, $p < .05$)가 여전히 유의미한 직접효과를 보였고 모델 1에서 영향력이 없었던 심리적 스트레스는 신념체계와의 상호작용 효과($\beta = -.14$, $p < .05$)에 의해 가족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관계적 스트레스도 주효과뿐 아니라 신념체계와의 상호작용 효과($\beta = .17$, $p < .01$)에 의해 가족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신념체계가 관계적 스트레스가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관계적 스트레스와 심리적 스트레스가 가족적응과의 관계에서 신념체계 수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한부모가 경험하는 관계적 스트레스와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한 가족적응의 어려움을 가족의 신념체계가 조절효과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심리적 스트레스가 신념체계와 상호작용 할 때 가족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강한 신념체계가 오히려 가족적응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윤수희(2004)의 연구에서 치매노인 부양가족의 스트레스가 강한 신념체계와 상호작용하여 가족적응이 감소된 결과와 일치한다.

스트레스와 조직패턴의 상호작용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모델 3에서도 심리적 스트레스와 조직패턴의 상호작용효과($\beta = .154$, $p < .05$)와 관계적 스트레스와 조직패턴의 상호작용효과($\beta = .153$, $p < .05$)가 가족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설명력도 1.7% 증가하여 총 59.8%의 설명력을 보였다. 조직패턴($\beta = .40$, $p < .001$)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의사소통 과정($\beta = .20$, $p < .001$), 신념체계($\beta = .14$, $p < .01$), 관계적 스트레스($\beta = -.13$, $p < .01$), 그리고 경제적 스트레스($\beta = -.11$, $p < .05$)

순으로 유의한 직접효과를 나타냈고 모델 2에서처럼 심리적 스트레스는 직접효과는 없으나 조직패턴과의 상호작용 효과($\beta = .154$, $p < .05$)를 통해 가족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관계적 스트레스는 가족적응에 미치는 부적 영향이 조직패턴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정적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변화하였다. 따라서 관계적 스트레스와 심리적 스트레스는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족의 조직패턴 수준에 의해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스트레스와 의사소통 과정의 상호작용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모델 4에서도 심리적 스트레스와 의사소통 과정($\beta = .14$, $p < .05$), 관계적 스트레스와 의사소통 과정과의 상호작용($\beta = .16$, $p < .01$) 변수가 가족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수임을 나타내며 1.2%의 설명력을 증가시켜 총 59.3%의 설명력을 보였다. 조직패턴의 영향력이 여전히 가장 크며($\beta = .44$, $p < .001$), 의사소통 과정($\beta = .19$, $p < .001$), 신념체계($\beta = .13$, $p < .05$), 경제적 스트레스($\beta = -.13$, $p < .01$)와 관계적 스트레스($\beta = -.12$, $p < .05$)가 유의한 직접효과를 심리적 스트레스와 관계적 스트레스는 의사소통 과정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가족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위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한부모가족의 적응에 스트레스와 가족탄력성이 직접영향을 미치는 주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탄력성이 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력을 중재하는 조절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적 스트레스는 한부모가족의 적응에 부적인 직접효과를 나타내었다. 관계적 스트레스는 가족적응에 부적인 직접효과를 나타냈으나 가족탄력성과의 상호작용효과에 의해 정적인 조절효과를 나타내었다. 심리적 스트레스는 직접효과는 없었으나 가족탄력성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가족탄력성의 하위요인인 가족의 신념체계와 조직패턴 그리고 의사소통 과정 모두 가족적응에 정적인 주효과와 조절효과 모두 나타내어 한부모가족의 적응이 주로 가족탄력성에 의해 영향 받는 것을 시사한다.

세 하위요인 중 조직패턴의 영향력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 한부모가족의 탄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조직패턴의 요소인 역할안정성과 융통성, 가족간의 유대, 사회·경제적 자원을 강화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가족간의 의사소통 과정의 영향력도 크게 나타나 의사소통의 명료화나 감정공유, 그리고 상호협조적 문제해결능력을 발달시키도록 도움을 주어야 하며 한부모가족의 역경에 의미를 부여하고 긍정적 시각으로 가족강점을 강화하여 긍정적 신념체계를 갖도록 해야 한다. 가족탄력성은 경제적 스트레스에 대한 조절효과는 갖지 못하지만 한부모의 심리적 스트레스나 관계적 스트레스는 가족탄력성에 의해 조절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매개효과

가족탄력성의 가족적응에 대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회귀분석조합에 따른 절차를 사용하였다. 한부모가족의 스트레스가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가족탄력성의 매개역할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1단계에서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하고 2단계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주어야하며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한다. 3단계에서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2단계보다 3단계의 회귀식에서 감소하

거나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매개변인의 매개효과가 있다(Bennett, 2000).

매개효과는 완전매개와 불완전매개로 구분되는데 완전매개는 3단계에서 종속변인에 대한 매개변인의 영향력이 유의하면서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불완전매개는 3단계에서 종속변인에 대한 매개변인의 영향력이 유의하면서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도 유의한 경우를 말한다(김현순·김병석, 2007).

위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 가족탄력성의 각 하위요인이 스트레스와 가족적응 사이에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 6>~<표 8>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6> 스트레스가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신념체계의 매개효과

단계	경로	Beta	R Square
1단계 (독립변인 → 매개변인)	경제적 → 가족적응	1.521	.333
	심리적 → 신념체계	-2.177 *	
	사회적 → 신념체계	-3.203 **	
	관계적 → 신념체계	-6.884 ***	
2단계 (독립변인 → 종속변인)	경제적 → 가족적응	-1.546	.269
	심리적 → 가족적응	-.002	
	사회적 → 가족적응	-1.750	
	관계적 → 가족적응	-6.480 ***	
3단계 (독립변인, 매개변인 → 종속변인)	경제적 → 가족적응	-2.598 *	.440
	심리적 → 가족적응	1.194	
	사회적 → 가족적응	-.223	
	관계적 → 가족적응	-3.376 **	
	신념체계 → 가족적응	10.538 ***	

*p<.05, **p<.01, ***p<.001

<표 7> 스트레스가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직패턴의 매개효과

단계	경로	Beta	R Square
1단계 (독립변인 → 매개변인)	경제적 → 조직패턴	-.210	.297
	심리적 → 조직패턴	.101	
	사회적 → 조직패턴	4.787 ***	
	관계적 → 조직패턴	-5.526 ***	
2단계 (독립변인 → 종속변인)	경제적 → 가족적응	-1.546	.269
	심리적 → 가족적응	-.002	
	사회적 → 가족적응	-1.750	
	관계적 → 가족적응	-6.480 ***	
3단계 (독립변인, 매개변인 → 종속변인)	경제적 → 가족적응	-1.795	.546
	심리적 → 가족적응	-.081	
	사회적 → 가족적응	1.469	
	관계적 → 가족적응	-3.747 ***	
	조직패턴 → 가족적응	14.851 ***	

***p<.001

<표 8> 스트레스가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사소통과정의 매개효과

단계	경로	Beta	R Square
1단계 (독립변인 → 매개변인)	경제적 → 의사소통과정	2.338 *	.254
	심리적 → 의사소통과정	.835	
	사회적 → 의사소통과정	-3.378 **	
	관계적 → 의사소통과정	-7.748 ***	
2단계 (독립변인 → 종속변인)	경제적 → 가족적응	-1.546	.269
	심리적 → 가족적응	-.002	
	사회적 → 가족적응	-1.750	
	관계적 → 가족적응	-6.480 ***	
3단계 (독립변인, 매개변인 → 종속변인)	경제적 → 가족적응	-3.141 **	.457
	심리적 → 가족적응	-.492	
	사회적 → 가족적응	-.042	
	관계적 → 가족적응	-2.738 **	
	의사소통과정 → 가족적응	11.191 ***	

p<.01, *p<.001

<표 6>의 신념체계 매개효과의 결과를 보면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심리적($\beta=2.18$), 사회적($\beta=3.20$), 그리고 관계적 스트레스($\beta=6.89$)가 매개변인인 신념체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2단계에서는 관계적 스트레스($\beta=.648$)만 종속변인인 가족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매개변인인 신념체계($\beta=10.54$)와 독립변인인 관계적 스트레스($\beta=-3.38$)가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어 가족의 신념체계는 관계적 스트레스와 가족적응 사이에 불완전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관계적 스트레스가 신념체계에 부적영향을 미치나 신념체계가 가족적응에 정적영향을 미쳐 가족의 신념체계가 관계적 스트레스 효과를 통제함으로써 가족적응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직패턴의 매개효과 결과는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1단계에서 사회적 스트레스와 관계적 스트레스가 조직패턴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2단계에서는 관계적 스트레스만 가족적응에 유의하게 나타났고 3단계에서는 관계적 스트레스와 조직패턴이 동시에 가족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의 조직패턴이 가족적응에 불완전 매개효과를 갖는 것을 나타낸다. 이 결과도 가족의 신념체계와 마찬가지로 조직패턴이 관계적 스트레스와 가족적응 사이에 매개하여 가족적응을 높이는 역할을 함을 보여준다.

<표 8>은 의사소통과정의 매개효과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1단계에서 경제적 스트레스와 사회적 스트레스 그리고 관계적 스트레스가 의사소통과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관계적 스트레스만 가족적응에 유의하게 나타났고 3단계에서는 경제적 스트레스와 관계적 스트레스, 그리고 의사소통과정이 동시에 가족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제적 스트레스는 2단계에서 영향력이 없었고 관계적 스트레스와 의사소통과정이 가족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의 의사소통과정이 관계적 스트레스와 가족적응 사이에 불완전 매개효과를 갖는 것을 나타낸다. 이 결과도 가족의 의사소통과정이 관계적 스트레스와 가족적응 사이를 매개하여 관계적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통제하여 가족적응에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음을 나타낸다.

스트레스가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종합해 보면 가족의 신념체계와 조직패턴, 의사소통과정의 가족탄력성이 관계적 스트레스와 가족적응과의 관계를 매개하여 관계적 스트레스가 가족적응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매개효과를 가진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부모 가족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가족의 강점에 초점을 맞추어 가족탄력성 접근을 이론틀로 하여 한부모가족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와 가족탄력성의 영향력을 밝히고 특히 한부모가족의 스트레스와 적응 사이에 완충역할을 하는 가족탄력성의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힌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부모가족의 스트레스와 가족탄력성에 따라 가족적응에 차이가 나타났다. 경제적 스트레스, 심리적 스트레스, 사회적 스트레스, 그리고 관계적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가족적응 점수가 낮게 나타났고 가족탄력성의 하위영역인 가족의 신념체계, 조직패턴과 의사소통과정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가족적응 점수가 높게 나타나 스트레스 수준이 높고 가족탄력성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가족적응의 어려움을 알 수 있다.

둘째, 한부모가족의 적응에 경제적 스트레스와 관계적 스트레스가 유의한 부적 주효과를 나타냈고 가족탄력성의 하위요인인 가족의 신념체계, 조직패턴, 의사소통 과정은 모두 유의한 정적 주효과를 나타냈다. 전반적으로 가족탄력성의 영향력이 스트레스의 영향력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 한부모가족의 적응은 가족스트레스 보다 가족탄력성에 의해 주로 설명됨을 알 수 있다.

셋째, 한부모가족의 적응에 미치는 스트레스의 영향력을 가족탄력성이 완충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조절효과를 보면 심리적 스트레스와 관계적 스트레스가 가족의 신념체계와 조직패턴, 그리고 의사소통 과정의 가족탄력성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가족적응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탄력성은 관계적 스트레스가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종합하여 한부모가족의 적응에 스트레스의 부적 영향력을 완화시키는 가족탄력성의 완충효과를 조절효과와 매개효과로 살펴본 결과 가족탄력성이 심리적 스트레스와 관계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조절효과를 나타내었고 특히 관계적 스트레스 경우 조절효과와 매개효과가 다 나타나 가족탄력성이 가족적응에 중요한 완충역할을 함을 시사하고 있다. 즉, 가족탄력성은 가족의 위험요인 극복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가족적응의 관계를 지원하는 변인으로 주로 기능함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한부모가족의 적응은 가족스트레스보다 가족탄력성에 의해 더 잘 설명될 수 있다. 이 결과는 한부모가족의 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가족스트레스의 감소라는 문제중심적 개입보다 가족탄력성을 강화하는 강점중심의 개입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한부모가족의 가족탄력성은 한부모가족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완충하는 역할을 하여 스트레스가 가족적응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부모가족의 적응이 스트레스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보다 가족탄력성의 완충효과에 의해 보다 잘 설명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탄력성의 중요성을 입증한 것으로 가족적응의 핵심을 스트레스와 위기에 초점 맞추기보다 역경에 직면하여 보다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적응하는 한부모가족의 회복과정에 중점을 두는

가족탄력성 접근이 한부모가족의 적응을 설명하는 이론적 틀로서의 유용성을 제시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스트레스 유형에 따라 가족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탄력성의 완충역할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실천적 함의와 추후 연구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경제적 스트레스의 경우 가족적응에 부적인 직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탄력성 하위요인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완충효과가 없었다. 이 결과는 한부모가족이 경험하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가족적응을 어렵게 하고 가족의 신념체계, 조직패턴, 의사소통 과정의 가족탄력성이 경제적 스트레스를 감소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많은 선행연구들(한국여성개발원, 1984; 조홍식 등 1997)에서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고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의 47%가 월수입 100만원 미만인 점과 한부모로서 가장 힘든 점으로 56%가 경제문제를 꼽은 점을 감안하면 한부모가족에서 경제적 어려움은 심각한 현실을 반영한다. 경제적 스트레스는 다른 모든 문제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한부모가족의 적응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신화용과 조병은(1996)의 연구에서도 여성 한부모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경제적 자원이며 경제적 자원의 부족은 스트레스, 긴장감,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였고 김선영(1991)도 금전적인 어려움이 많은 여성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가정생활의 질과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사회적 스트레스는 한부모가족의 적응에 직접효과와 가족탄력성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완충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증가하는 이혼으로 인해 한부모가족이 늘어나면서 이혼이나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는 점과 경제적 문제나 자녀양육 문제 같은 더 심각한 현실적 문제에 의해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다고 볼 수 있다.

관계적 스트레스는 본 연구에서 한부모가족의 적응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주효과와 가족탄력성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조절효과와 매개효과가 다 나타나 가족탄력성의 중요한 완충역할을 시사하고 있다. 주효과 결과는 한부모가족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히는 자녀양육문제를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나 가족의 신념체계와 조직패턴과 의사소통 과정의 가족탄력성이 자녀관계 스트레스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여 가족적응의 향상에 기여함을 나타낸다. 이 결과는 한부모가족의 적응을 향상시키는 개입방안에 자녀양육이나 자녀관계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문제해결개입도 필요하지만 가족탄력성을 강화하는 강점중심의 개입이 보다 효과적임을 나타낸다.

심리적 스트레스의 경우 한부모가족의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력은 없었으나 가족탄력성과의 상호작용 효과를 통해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도 가족탄력성이 심리적 스트레스를 조절하여 가족적응의 향상에 기여함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결과는 늘어나는 한부모가족의 적응을 돋기 위한 개입으로 한부모가족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유형에 따라 가족적응에 차이가 나타나므로 경제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국가의 경제적 지원서비스와 정책이 뒷받침되어야하고 한부모의 심리적 스트레스와 관계적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서는 스트레스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적응하는 가족의 회복과정에 중점을 두는 가족탄력성을 강화하는 개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한부모가족의 적응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를 보다 폭넓게 선정하기 위해 대도시와 소도시의 한부모를 포함하였으나 연구대상의 특성상 표집이 어려워 대표성 있는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초점은 한부모가족의 스트레스와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탄력성의 역할을 밝히는데 두어 사회인 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모자가족과 부자가족의 스트레스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그에 따른 가족탄력성의 완충효과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한부모가족 중 부자가정이 빠르게 증가하는 현실에서 가족형태의 차이에 따라 차별화된 개입이 보다 효과적이므로 추후연구과제에서 밝히고자 한다.

한부모가족의 스트레스를 나누어 분석하였으나 스트레스 문항 수가 적어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보고 추후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유형을 보다 포괄적으로 측정하는 도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스트레스와 상호작용하는 가족탄력성의 영향을 보다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신념체계와 가족조직과 의사소통 과정의 세부적 하위요인별로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가족탄력성의 완충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추후연구에서 밝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나 한부모가족의 건강성에 자녀적응이 중요한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고(현은민 등, 2006) 개인탄력성과 달리 가족탄력성은 가족의 상호작용과정에 중점을 두므로 한부모가족 내에서 부모와 자녀의 경험이 다르고 세대간에 인식의 차이를 간파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음으로 자녀를 대상으로 가족탄력성의 영향을 밝히는 것도 추후연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질문지법으로 가족적응이나 가족탄력성을 측정하는 것은 가족의 역동적인 상호작용과정을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관찰법이나 심층면접법과 같은 질적연구방

법을 병행하는 연구방법이 보다 심층적인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가족적응은 가족이 위기 후 새로이 적절한 균형을 성취하여 가족의 통합성을 유지하는 가족의 극복노력에 대한 결과로 보고 가족탄력성은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가족과정으로서 스트레스를 완충하여 가족적응을 지원하는 조절변수로 보았으나 가족탄력성은 대처와 적응의 의미가 내포될 수 있으므로 개념의 명료화가 필요하며 가족탄력성에 의한 가족적응의 변화과정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종단적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이론적 측면에서 가족탄력성 접근을 토대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연구와 개입을 결핍모델에서 강점모델로의 관점으로 변화시켜 한부모가족의 적응을 촉진하고 건강성과 강점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부모가족의 적응에 대한 스트레스와 가족탄력성의 주 효과 이외에도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여 가족스트레스와 적응 연구의 이론 구축에 도움이 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한부모가족에 적용할 수 있는 가족탄력성 관점의 유용성을 검토할 수 있어 가족생활의 성공을 원하는 현대사회에 다양한 가족형태에 적용하여 가족의 건강성과 강점을 밝힐 수 있는 이론적 모델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연구방법론적 측면에서 한국의 한부모가족의 적응에 적용할 수 있는 가족탄력성의 개념의 명료화 작업과 측정도구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한부모가족이라는 불리한 현실에서도 탄력적으로 적응해 가는 가족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강점관점에서 양적·질적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다. 또한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탄력성 접근은 새로운 시도이므로 앞으로 후속연구가 계속되어 가족강점 관점에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대상으로 연구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셋째, 현장실무 활용면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가족상담과 가족생활교육, 가족정책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증가하는 한부모가족을 염연한 현실로 인정하고 한부모가족도 건강한 가족을 이룰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에 가족탄력성 접근이 유용할 것이다. 한부모가족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부적응을 약화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두기보다 가족적응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가족탄력성과 같은 강점을 강화하는 개입이 보다 효과적이므로 한부모가족의 스트레스에 완충역할을 하여 적응에 기여하는 가족탄력성의 요인들을 밝혀 가족생활교육과 가족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즉 한부모를 대상으로 위기상황에서도 의미를 찾고 긍정적 시각으로 가족강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고 또한 가족의 역할안정성과 유연성을 기르고 가족간의 유대를 강화하여 사회적, 경제적 자원을 활용하도록 교육하며 특히

자녀와의 개방적인 감정표현을 통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협조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기르는 내용의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적응을 돋고 가족의 건강 성과 강점을 강화할 수 있다.

넷째, 가족정책면에서 최근 급격한 가족해체가 사회문제화 되어 건강한 가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건강가정기본법이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부모가족의 가족탄력성을 탐색한 본 연구의 결과는 가족정책자들이 한부모가족의 건강성과 잠재력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고 한부모가족이 건강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접 수 일 : 2007년 07월 15일
- 심 사 일 : 2007년 08월 11일
- 심사완료일 : 2007년 09월 14일

【참 고 문 헌】

- 공세권 · 조애저(1995). 가족결손의 유형별 특성과 가족정책의 접근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석기(2006). 청소년의 적응유연성과 관련된 가족관계 변수 와 매개변인의 구조적 분석. 공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강혜구(1987). 결손가정 고교생과 정상가정 고교생의 가족 및 자아에 대한 개념비교.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고성혜 · 한유진(1995). 편모가정 청소년의 가정환경에 대한 지각. 한국청소년연구, 20, 60-73.
- 공선영(2000). 모자가족의 경험과 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 구정화(2005). 한부모 가족의 가족탄력성이 가족 적응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복순(2000). 모자가족의 어머니와 자녀가 지각한 가족기능의 특성. 한국사회복지학, 40, 5-37.
- 김미숙(2000). 저소득 편부모 가족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 김미숙 · 박민정 · 이상현 · 홍석표 · 조병은 · 원영희(2000). 저소득 편부모가족의 생계실태와 정책과제. 한국사회 보건연구원.
- 김미옥(2001). 장애아동가족의 적응에 대한 가족탄력성(family resilience)의 영향력 분석. 한국가족복지학회지 8, 9-40.
- 김선미(1999). 가족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 -부자가정을 중심 으로.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성경(2001). 그룹홈 거주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영희(1996). 빈곤층 편모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및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역할수행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 박사 학위 논문.

김영희 · 김갑숙 · 최외선(1995). 편모가정 자녀의 적응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2), 113-127.

김오남(1998). 편모가족의 모자녀관계와 심리적 복지. 한국 가족복지학, 4(2), 63-80.

김오남 · 김경신(1998). 편모가족의 가족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4), 107-123.

김정자(1985). 편부모 가족의 지원 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여성연구, 6, 30-78.

김정자(1998). 저소득층 모자가족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20, 5-43.

김태현 · 조희선(1991). 모자가족과 부부가족간의 가족 스트레스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가족학논집, 3, 69-97.

김현순 · 김병석(2007). 자아존중감이 노인의 스트레스와 우울 의 관계에 미치는 매개효과. 한국노년학, 27(1), 23-37.

송성자(1987). 가족관계와 가족치료. 홍일사.

신진희(1995). 부자가정의 의미와 문제점 및 대응책. 사회 과학 논문집, 14(1), 63-95.

신화용 · 조병은(1996). 편모가 인지한 자원과 편모의 심리적 적응. 가족학 논집, 8, 57-76.

이소영 · 옥선희(2002). 자녀의 정서적 지원과 모-자녀간 의사 소통 특성 지각에 따른 저소득층 여성 가장의 생활 만족도 및 우울감. 대한가정학회지, 40(7), 53-68.

이애재(1999). 편부모가족 기능에 따른 자녀의 심리 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수경(2003).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장혜경 · 송다영 · 김영란 · 김정훈(2001). 여성 한부모가족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여성부 정책자료.

정현숙 · 서동인(1996). 편부모 가족의 자녀가 인지한 가족 환경 및 사회 심리적 적응. 늘어나는 편부모가정. 서울 특별시 가정복지 세미나.

조미희(1999). 편부모 가족의 실태와 복지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조희선(1991). 모자가족과 부부가족의 가족스트레스에 관한 비교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조병은 · 서동인 · 신화용 · 정현숙(1998). 편모가족의 어머니와 자녀의 궁정적 변화에 미치는 자원의 영향. 대한가정 학회지, 36(1), 13-21.

조홍식 · 김인숙 · 김혜란 · 김혜련 · 신은주(1997). 가족복지학. 학지사.

최희경 · 이인숙(2005). 비정형가족의 특성과 가족복지에의 함의. 한국가족복지학, 15, 245-283.

- 통계청(2004). 인구주택 총 조사서.
- 한경혜(1993). 한국 이혼부부의 적응과 관련변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가족학연구회. 이혼과 가족문제.
- 현은민·임보래·장경문(2006). 한부모가족의 건강성 관련 특성과 변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4(4), 23-38.
- Antonovsky, A.(1987). *Health, stress, and coping: New perspectives in mental and physical well-being*. San Francisco, CA; Jossy-Bass.
- Antonovsky, A & Sourani, T.(1988). Family sense of coherence and family adapt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 79-92.
- Baron, R. M & Kenny, D. 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eaver, W. R. & Hampson, R. B.(1993). Measuring family competence : The Beavers systems model. In F. Walsh(Ed.). *Normal family processes*(2nd ed.), N.Y.: Guilford Press.
- Bennett, J. A. (2000). Mediator and moderator variables in nursing research: Conceptual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Research Nursing Health*, 23, 415-420.
- Bevino, D. L. & Sharkin, B. S. (2003). Divorce adjustment as a function of finding meaning and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39(3/4), 81-97.
- Booth, A. & Amato, R.(1991). Divorce and psychological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2, 396-407.
- Burden, D. S.(1986). Single parents and the work setting: The impact of multiple job and homelife responsibilities. *Family Relations* 35(1), 37-43.
- Cooley, C. H.(1964). *Human nature and social order*. N.Y.: Schocken.
- Criss, M. M., Pettit, G. S., Bates, J. E., Dodge, K. A. & Lapp, A. L.(2002). Family adversity, positive peer relationships, and children's externalizing behavior: A longitudinal perspective on risk and resilience. *Child Development*, 73(4), 1220-1237.
- Dixon, S. J. (2002). *Attitudes that reflect resilience and their relationship to coping responses and protective factors in African American college student*.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State.
- Epstein, N. B., Baldwin, L. M., & Bishop, D. S.(1983). The McMaster family assessment devic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9, 171-182.
- Fife, B. L.(1995). The measurement of meaning in illness. *Social Science Medicine*, 40, 1021-1028.
- Fine, M. A., Donnelly, B. W. & Voydanoff, P.(1986). Adjustment and satisfaction of parents: a comparison of intact, single-parent, and step-parent families. *Journal of Family Issues*, 7(4), 391-404.
- Folkman, S., & Lazarus, R. S.(1980). An analysis of coping in a middle-aged community sampl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1, 219-239.
- Flankl, V. E.(1963). *Man's search for meaning*. N.Y.: Washington Square Press.
- Garmazy, N., & Masten, A. S.(1986). Stress, competence, and resilience: common frontier for therapists and psychologists. *Behavior therapy*, 17(5), 500-521.
- Hair, H. F. Jr., Anderson, R. E., & Tatham, R. L., & Black, W. C. (1995). *Multivariate data analysi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Hawley, D. R. & Dehaan, L.(1996). Toward a definition of family resilience: Integrating life-span and family perspectives. *Family Processes* 35, 283-298.
- Hawley, D. R.(2000). Clinical Implication of Family Resilience,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8, 101-116.
- Holmes, T. S. & Rahe, R. H.(1967). The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11.
- Johnson, K., Bryant, D. D., Collins, D. A., Noe, T. D., Strader, T. N. & Berbaum, M.(1998). Preventing and reducing alcohol and drug use among high-risk youths by increasing family resilience. *Social Work* 43, 297-308.
- Kelly, J. B. & Emery, R. E. (2003). Children's adjustment following divorce: Risk and resilience perspectives. *Family Relations* 52, 352-362.
- Kosciulek, J. F., McCubbin M. A. & McCubbin, H. I. (1993). A theoretical framework for family adaptation to head injury. *Journal of Rehabilitation*, 40-45.
- Lin, S. L.(2000). Coping and adaptation in family of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Exceptional Children* 66, 201-218.
- Lustig(1996). Family adaptation to a young adult with mental retardation. *Journal of Rehabilitation*, 22-27.
- Luthar. S. S., Cicchetti, D., & Becker., B. E.(2000). The

- construct of resilience: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s for future work, *Child Development*, 71. 543-562.
- McCubbin, H. I. & McCubbin, M. A.(1993). Family coping with health crises: The resiliency model of family stress, adjustment and adaptation(21-64). In C. Danielson, B. Hamel-Bissell, & P. Winstead-Fry(Eds.), *Families, Health and Illness*. St. Louis MO: C. V. Mosby.
- McCubbin, H.I., McCubbin, M. A., & Thompson, A. I.(1998). Resiliency in families: The role of family schema and appraisal in family adaptation to crises. In T. H. Brubaker(ed.). *Family relations: Challenge for the future*.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McCubbin, H. I., Patterson, J. & Wilson, L.(1980). *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s(FILE)*. St. Paul: University of Minnesota.
- McCubbin, H. L & McCubbin, M. A. (1988). Typologies of Resilient Families: Emerging Roles of social calss and ethnicity, *Family Relations* 37, 247-254
- Melissa, A. B.(1994). *Family functioning and children's house hold responsibilities in divorced single-parent families*.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Kansas.
- Olson, D. H. (199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In F. Walsh(Ed.), *Nomal Family Processes(2nd ed.)* N.Y.: Guilford Press.
- Patterson(1991). Family resilience to the challenge of a child's disability. *Pediatric Annals*, 20(9) 491-500.
- Patterson, J. M. & Garwick, A. W.(1994). Theoretical linkages: Family meaning and sense of coherence. In H. McCubbin, E. Thompson, A. Thompson, & J. Fromer(Eds.). *Sense of Coherence and Resiliency: Stress, coping, and health*. Madison: Center for Excellence in Family Studies. University of Wisconsin.
- Peterson, J. L. & Zill, N.(1986). Marital disruption,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behavior problems in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2), 295-307.
- Quinney D. M. & Fouts, G. T.(2003). Resilience and divorce adjustment in adults participating in divorce recovery workshops.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40(1/2), 55-68.
- Richards, L. & Schmiege, C.(1993). Problems and strengths of single-parent families: Implication for practice and policy. *Family Relations* 42, 277-285.
- Roosa, M. W.(2000). Some thoughts about resilience versus positive development, main effects versus interactions, and the value of resilience. *Child Development* 71. 567-569.
- Rutter, M.(1987). Psychologic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7, 316-331.
- Santrock, J. W.(1975), Father absence, perceived maternal behavior, and moral development in boys. *Child Development*.
- Singh, R. N. & McBroom, J. R. (1992). On measuring the adjustment of separated and divorced mothers to parenting: a proposed scale.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18(1/2) 127-147.
- Walsh, F.(1996). The concept of Family Resilience: Crisis and Challenge. *Family Process* 35, 261-281.
- Walsh, F.(1998). *Strengthening family resilience*. NY: The Guilford Press.
- Walsh, F.(2002). Family resilience framework: Innovative practice applications. *Family Relations* 51(2), 130-137.